

2일 Market Index			
↓ 코스피	3075.06	↓ 코스닥	782.17
	(-14.59)		(-1.50)
↑ 금리 (미국 9년)	2.483	↑ 환율 (원·달러)	1359.10
	(+0.029)		(+3.20)



HVAC에 미래 건다... 삼성·LG, ‘열’ 다스리기 승부수

〈냉난방공조〉

AI·반도체 확산에 냉각수요 급증
글로벌 HVAC시장 연 6% 성장세
EU 탄소중립 정책도 시장확대 견인

삼성, 플렉트 인수로 통합 솔루션
LG, OSO 온수기술로 생활시장 겨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 냉난방 공조(HVAC) 전문기업을 잇따라 인수 하며 새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섰다. 고성능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확산으로 발열량이 급증하면서 ‘열을 다스리는 기술’이 전자업계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2일 글로벌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HVAC 시장은 2024년 3016억 달러(약 415조원)에서 2034년 5454억 달러(약 750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AI 서버와 반도체 장비 가동이 늘면서 냉각수요가 치솟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 클린룸, 공장 등 대형 산업시설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열 관리 시스템이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의 정책 변화도 공조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 EU는 ‘핏 포 55(Fit for 55)’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가스·석유 보일러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히트펌프 등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히트펌프 설치 시 최대 50%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프랑스·오스트리아 등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독일 산업용 공조기업 플렉트그룹을 15억유로(약 2조 3700억원)에 인수했다. 2017년 하만 인수(약 9조 4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이다.

플렉트그룹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기가팩토리 등 고발열 산업시설에 특화된 냉각·공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럽 최대 HVAC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플렉트그룹 인수를 통해 반도체부터 서버, 데이터센터, 냉각까지 수직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사 스마트싱스 플랫폼과 연결되는 AI·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 HVAC 서비스 모델도 구축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지난달 30일 노르웨이 온수 솔루션 전문기업 OSO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수천 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1932년 설립된 OSO는 스테인리스 고효율 온수 저장장치(워터스토리지) 분야에서 유럽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 히트펌프·보일러와 연계한 고효율 온수 시스템을 강점으로 한다.

LG전자는 자사 히트펌프와 OSO의 온수 저장 기술을 결합해 유럽 주거·상업 공간의 전기화·탄소중립 수요를 흡



여야,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합의

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15~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뉴시스

수하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이 대형 산업시설을 노린다면, LG는 생활밀착형 친환경 시스템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HVAC 사업 성장을 위해 ES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지난 3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 냉각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

추경·외교·민생까지 속도전 내각 90% 인선, 리더십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3일자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두 번째 정부였으나, 이 대통령 특유의 ‘초고속’ 업무스타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6개월 간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을 복구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12일 만에 해외 순방도 다녀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에 들어갈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고 나서 총리의 임명제정을 받아 내각 인선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정을 통해 내각을 꾸린 셈이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한달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의 90%를 채운 것이다. 이는 12·3 내란 이후 콘트롤타워가 없던 행정부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특기할 점은 내각 인선에 학자 출신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하거나, 기업 출신 인사를 데려오고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통상의 정치권에선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용인술을 보였다.

한 여론 관계자는 “이번 정부 내각에는 교수들이 없는데, 이는 일단 잘하면 가리지 않고 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재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날 저녁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빠른 진행 덕에 정부는 곧바로 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취임 2주 남짓 지난 지난달 19일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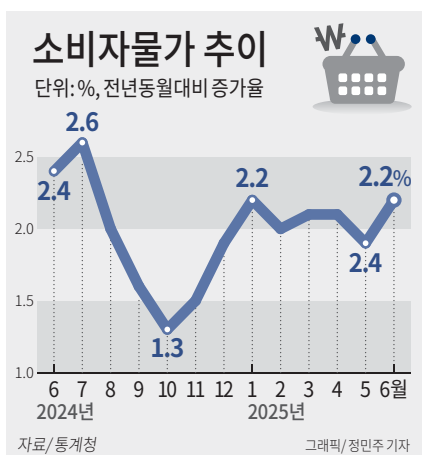
2%대 물가 재진입... 수산물·가공식품이 주도

6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2% ↑
정부, 품목별 추이 등 예의 주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가공식품·석유류 가격 오름세에 따른 영향이 컸다.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 폭이 다행히 3% 아래에 묶여 있으나 정부는 품목별 추이 및 자극요인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일 정부는 그간 누적된 상승에 따른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116.31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달 연속 2%를 넘어선 뒤 5월에 1.9%로 내려온 바 있다. 이후 6월



에 다시 2% 선을 넘어섰다.

수산물(+7.4%) 가격이 크게 뛴 것을 비롯해 가공식품(+4.6%), 축산물(+4.3%), 외식(+3.1%) 등 먹거리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수산물 값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사이가

장 큰 폭으로 올랐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보다 내렸으나 하락폭(-1.8%)은 전월인 5월(-4.7%)보다 줄었다.

세부 품목별로 마늘(+24.9%), 고등어(+16.1%), 김치(+14.2%), 라면(+6.9%), 빵(+6.4%), 달걀(+6.0%), 돼지고기(+4.4%), 국내산소고기(+3.3%) 등이 크게 상승했다. 이 중 달걀은 3년 5개월 만에, 라면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5월 내림세(-2.3%)를 기록했던 석유류 가격은 6월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라 상승(+0.3%)으로 돌아섰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10.6%나 뛰었다. 또 지역난방비(+9.8%), 도시가스(+6.9%), 상수도료(+3.6%) 등도 전체 물가 상승폭을 웃돌았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추경 예비심사서 원안보다 9.5조 ↑ 총 40조 육박... 예결위 조정 /사진 뉴시스
- ▲한중 외교 국장급 협의... 양국 정상 상호 방문 관련 논의

- ▲이 대통령 “주식이 부동산 대체투자로 자리잡게 방안 내놓을 것”
- ▲조국혁신당 “검찰 간부 인사李정부 맞나 의문... 재고해야”

-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 찬반성명... 자질 자격 우려
- ▲경매도 ‘대출 6억·6개월내 전입’...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제동